

동부한농화학, 경영대상 혁신부문 우수팀 선정

동부한농화학 농업기획팀이 2005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혁신부문 우수팀에 선정됐다.

동부그룹은 1월16일 곤지암에 위치한 동부그룹 종합연수원에서 <2005년 동부그룹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부그룹 경영대상은 2005년부터 △혁신 부문 △기술부문 △금융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뛰어난 공로나 성과를 낸 임직원 및 부서에 주는 상으로서 2006년에는 총 12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성과 확대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혁신부문에는 반도체 기술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에 성공한 동부아남반도체 0.18 μ m Shrink Project팀(박진원 상무), 고효율 경영지원체계 확립에 공로한 동부화재 경영지원실(박윤식·이근교 상무), 동부한농화학 농업기획팀(양준일 부사장), 동부건설 철구사업소(장성옥 차장), 동

부정보기술 인사팀(박문수 상무) 등 5팀이 수상했다.

기술부문에는 순수 자체기술로 아연도금 강판 생산라인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동부제강 건설기획팀 및 아공설비팀(김철수 부장), 동부아남반도체 Etech Process TFT팀(김기호 상무), 동부아남반도체 Mr T Project팀(김영욱 상무), 동부엔지니어링 수자원환경부(양원형 전무) 등 4팀이 선정됐다.

또 금융 신상품 개발·영업·자산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하는 금융부문에는 신상품 개발에 기여한 동부화재 상품업무팀(정대영 상무), 부동산 복합 Project Financing으로 고객창출에 성공한 동부증권 종합금융팀(조우철 부장), 생명보험부문 최고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달성한 동부생명 자산운용본부(이수형 상무)가 수상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수상자들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우수인재가 양성되고 변화와 혁신이 보다 가속화돼 그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영대상 수상자들은 각각 트로피와 상금 1억원을 받았으며, 교육기회 부여 및 승진시 가점반영 등 수상자 우대 혜택을 누린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1/17>